

보도 일시	2022. 1. 21.(금) 09:00	배포 일시	2022. 1. 21.(금) 09:00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과장 배양희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김용수 (044-203-2748)

기관 수요와 특성 반영한 미술품 전시로 공간 품격 높인다 - 정부미술은행 맞춤형 작품 구입 제도 시행, 국회에 첫 작품 설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관장 윤범모, 이하 정부미술은행)과 함께 정부미술은행 맞춤형 작품 구입 제도를 시행하고 그 첫 사례로 1월 14일(금), 국회 본관 1층 로비 공간에 김보희 작가의 작품 ‘투워즈(Towards)’를 설치했다.

문체부는 정부 각 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미술 문화 대중화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정부미술은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미술은행은 2021년까지 공모와 추천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거나, 정부가 소유한 작품 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작품을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총 2,500여 점을 소장,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술품 대부와 전시, 훼손 작품의 복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소장 작품 검색: 정부미술은행 누리집(www.artbank.go.kr)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정부미술은행 맞춤형 작품 구입 제도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미술품을 희망하는 기관과 장소의 역사성, 성격, 특성을 고려한 작품을 전시하는 제도이다. 2021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각 정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국회 본관 1층 로비를 선정해 공간과 작품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구입심의를 통해 작가 제안, 작품 공모,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그 결과, 국회 로비라는 대중적 공간의 특성을 감안해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춰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고 생태와 자연, 풍경을 소재로 밝은 느낌을 주는 김보희 작가의 작품 ‘투워즈(Towards)’를 전시하게 됐다.

문체부와 정부미술은행은 앞으로도 외교, 영접 등에서 상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중요 장소에 품격있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입하고 소장 정부미술품을 대여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작품 구입 제도 수요를 조사한다. 공간을 꾸미기 위한 작품 대여 신청*은 상시 접수한다.

* 정부미술품 대부 문의(정부미술은행): 02-3701-9869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 문화의 발전과 국내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미술은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미술은행은 정부미술은행과 달리 국가기관 이외에도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에 소장품을 대여하고,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도 사회공헌을 위한 전시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 11월에는 인천공항공사와 협력해 외국 귀빈을 영접하는 공간에 한국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한국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미술은행 작품 대여 신청*도 상시 접수하고 있다.

* 미술은행 소장품 대여 문의: 02-3701-9656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정부미술은행이 예술성 높은 작품을 수집하기 위해 작품을 구입해 왔다면 이번 제도는 국가기관과 공간은 물론 미술품을 향유할 사람들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미술품을 활용해 한국미술을 널리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김보희 작가의 작품 ‘투워즈(Towards)’ 소개
 따로 붙임 국회 작품 설치 사진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과장 배양희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김용수 (044-203-2748)
<공동>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	책임자	과장 김유미 (02-3701-9862)
		담당자	연구관 손주영 (02-3701-9863)





김보희, <Towards(2019)>

<p>소속·학력</p>	<p>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전공 명예교수 1974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1976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순수미술과 졸업</p>
<p>수상이력</p>	<p>1992제2회 월전미술상 1983제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등 7회</p>
<p>전시이력</p>	<p><개인전> 2020 Towards, 금호미술관, 서울 2017 자연이 되는 꿈, 학교재갤러리, 서울 등 22회 <단체전> 80여회</p>

- 「Towards」 시리즈는 원형의 자연으로서 동식물이 공존하는 하나의 세계를 구현하여 자연이 지닌 시간의 순환성과 불변의 진리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생의 주기를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이번 전시 작품은 이러한 일관된 김보희 작가의 주제가 잘 표현되어 있는 대표적인 작품 중 한 점이며 웅장한 자연 속으로 자연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을 초대하며 공존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한다.